

# 삶과 수행 하나될 때 '확철대오'... 진정성이 중요

혜국 스님

간화선 제일주의라는  
지적에 대해

講  
論  
②

혜국 스님의 진솔한 수행담은 범문에 이은 토론에서도 계속됐다. 스님은 참선 수행을 묻는 질문 등에 하나하나 성의 있는 답변으로 대중을 감동시켰다.

이 자리에서는 고액의 해제비 등 갖은 병폐로 도마 위에 오른 선방이, 그래도 한국불교의 미래이며, 그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다는 희망도 강조했다.

특히 혜국 스님은 인재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종단이 나서지 않으면 선원수좌화라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전 스님 사회로 진행된 토론 요약)

도법 스님: 혜국 스님이 하신 말씀이 선방의 수좌들에게도 일상적 삶이 되도록 해야 한다.

혜국 스님의 "간화선이 제일 중요하다. 전통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다만 간화선 외의 것을 배제하고 경시하는 것은 문제 삼고 싶다. 간화선을 통해 깨달은 것과 다른 방법으로 깨달은 것이 갈을 수는 없지만 다를 수도 없다. 깨달음을 향한 과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본다.

성전 스님: 선방에 있는 스님들도 간화선만 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하다.

혜국 스님: 봉사가 눈뜨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생각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생각으로 깨달았는가 그렇지 않았는가의 차이는 참 중요하다. 생각이 끊어진 상태에서 깨달아야 한다.

성전 스님: 간화선 말고 다른 방법은 안 된다는 것인가?

혜국 스님: 그렇다. '나무 아미타불' 염불도 화두가 돼서 간화선을 해야 한다.

진오 스님: 한국 불교의 문제는 무엇인가? 종단행정의 무능력과 후진 양성, 신도 교육의 부실이 문제다. 이는 선방스님들의 책임이 아니다. 불교가 사회에 기여하지 못한 책임이다.

불교는 스님에게 거는 기대가 많다. 특히 선방스님들에 거는 기대가 크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스님들에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손길도 요구한다. 선방에서 '선(禪)'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책임도 잊어서는 안 된다.

혜국 스님: 나 자신부터 하심이 쉽지 않다. 경전에

서 '지(地)·수(水)·화(火)·풍(風)'으로 우리 몸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또, 아버지의 정자 2억 마리 중 하나가 난자와 만나고, 어머니가 물을 마시면 그것으로 내 몸의 수분을 채우고, 어머니가 숨을 들이 마시면 나의 들숨날숨이 생긴다. 그렇게 보면 태양이 나를 비추고 있고, 물이 나를 지탱하고 있다. 곧 우주 만물이 나를 지탱하고 있다.

언젠가 마티즈 자동차를 타고 하이마트 호텔에 갔었다. 그런데 차를 못 세우게 하더라. 그 날 해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떠 있었고 바람도 불며 나를 지탱해주고 있었다. (해와 바람은) 차별이 없었는데 (기본이) 참 그랬다.

우리로 자신한테 도움될 것 같은 사람 아니면 말도 잘 안 걸지 않나? 상(相)을 보는 것이다. 내 안에서 일어난 내 문제라는 것을 못보기 때문이다. 내게 져어진 숨이 그런 것이다.

간화선은 삶과 수행을 하나로 본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단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세계관과 인생관이 바로 서면 하심은 저절로 된다.

정안 스님: 많은 스님들이 큰 부담을 안고 안거에 들어가 하루 15시간씩 치열하게 정진한다. 그런데 사회봉사활동까지 하라는 의견이 나오니 참 부담스럽다.

큰스님(혜국 스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토론 사회를 맡은 성전 스님.

면 중생을 속이는 것이다. 그때만 해도 졸린 게 가장 큰 마장이었다. "성철 스님이 10년간 장좌불와 할 때 졸았을까 안 졸았을까" 이런 망상만 가득했다. 금금증을 참다못해 성철 스님을 찾아 물었다.

성철 스님은 "내가 목석이나, 안졸았겠어." 그 말만 듣고 "아 그럼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싶었다. 잠을 이

## 깨달음의 길 여러 가지... 염불도 화두 돼야 세계관·인생관 바로 서면 하심은 저절로

올지 않다. 이런 정도의 말씀은 제자들이 대신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혜국 스님: 간화선을 하다가 안되던 때가 있었다. 성철 스님에게 그렇게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갔다. 생각 끊어진 자리에서 화두가 있다는 말에 믿음이 안갔다. 그래서 성철 스님에게 "저는 법화사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법화경>의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성철 스님은 "부영이도 감감할수록 잘 보는데, 네가 안 보인다고 하더니 그것은 너의 습"이라고 말하며, "하루 5000배씩 하라"고 했다.

성철 스님 말씀대로 절을 했다. 7만배 8만배 졸하니 절하는 나를 잊은 적이 있었다. 내가 내 부처에 절하게 될 때 절하는 사람을 잊을 수 있다. 20만배 하고 태백산에 갔다. 가서 2년 7개월 동안 장좌불와 했다. 장좌불와를 하는 동안 배 고프면 음식생각, 예전 도반들 생각에 선은 제대로 못했다. 안됐다. 했다고 하

겨내려고 밧줄을 목에 묶었다. 졸다가 밧줄에 쓸린 목이 너무 아파서 수행이 더 안됐다.

산에서 생식하다 독풀을 먹었다. 그대로 엎어져 죽었다. 내 영혼이 나와서 어머니를 찾아가다. 하지만 나는 영혼이 없다고 믿는다. (영혼이) 있다고 하면 있는데 빠지고, 없다고 하면 없는데 빠진다.

"어머니 저 왔어요" 했는데 어머니가 듣지를 못했다. 그 순간 누가 나와 닮은 사람(사신)을 끌고 가는 것이 보였다. 따라가서 "누군데 나하고 이렇게 닮았나"하는 순간 다시 몸으로 되돌아갔다. 그런 일이 있던 후 다시 발심을 했다.

유서를 쓰고 절벽 끝 바위에 올랐다. 물그릇을 머리에 얹고 또 다시 졸면 죽겠다는 각오였다. 머리에 물그릇을 놓았을 때가 해가 질 무렵이었다. 다시 시간을 확인하려고 눈을 뜨니 해가 동쪽에서 떴을 때였다.

'일체개유불성(一切皆有佛性)'은 정말 맞다. 다만



세 번째 법주 혜국 스님 법석에서 대중들이 진지한 모습으로 토론에 임하고 있다.

삶과 수행이 하나가 될 때 확철대오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원초 대사가 다녀갔든 대단 한 일이다. 1초 사이도 극과 극이다.

간화선 교육에 대해 말하면, "익은 것은 설게 하고 설은 것은 익게 하라"는 말이 있다.

진정성이 중요하다. 수좌스님들도 사회봉사활동을 해야 한다는데 농사를 지어도 진정성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나는 그 진정성 담긴 행에 자신이 없다. 내가 수좌승들에게 그런 수행을 시키고자 하지만 잘 안 된다. (구췌인) 내가 지도다운 지도를 못하고 있다. 죄송하다.

토론자(비구니): 선방에 있다. 안거가 끝난 뒤 1주일 정도 사회봉사를 할 방법을 실천한다면 한국불교의 위상이 높아지고 자기점검도 되지 않을까 한다.

혜국 스님: 선방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불

사는 많은 스님들이 하고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최선이다.

도법 스님: 선방은 선방으로 있어야하고 수좌는 수좌답게 존재해야 한다. 어떤 길을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잘 잡는 것이다.

문경 봉암사를 보면 크고, 화려하다. 산문을 닫고 수행하는 한국 제일의 선원이다. 청정하고 좋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과연 여기가 진정 선원인가? 또 이 안에서 이뤄지고 있는 실천적 삶이 수행인가? 이점에 대해 봉암사 대중들이 부끄럼 없이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비워내고 비워내야 할 봉암사가 요즘은 물질로 풍요로워지고 있다. 반면 마을주민들의 공립은 더 해간다. 이것이 선원의 모습, 선원도량, 바람직한 수좌의 모습인가? 수좌가 수좌다워질 때 간화선이 살아날 수 있다.

특별취재팀

## 사주.퇴마.빙의.작명(신생아 이름) 수강생 모집



달마스님  
KBS, MBC  
방송출연

- ◆ 사주풀이 구궁팔괘법
- ◆ 심령을 통하는 기도
- ◆ 하루일진 래정법
- ◆ 육훈법
- ◆ 제갈공명 천비술서
- ◆ 귀신뽀는 신통술

전생요법 모습의 점괘로 왜 왔는지, 무슨 조상  
귀신이 붙었는지 마음을 꿰뚫어 보는 비법술

※ 스님들도 꼭 알아야 인기가 있고 신도가 많다 ■ 모집인원 : 10명  
■ 교육비용 : 100만원

- ◆ 부부인연 원진살 살풀이법
- ◆ 신년운세, 직장취직운
- ◆ 조상원귀법 영가천도
- ◆ 귀문관살 푸는 법
- ◆ 병을 일으키는 악령귀신 푸는 법
- ◆ 백호대살 푸는 법
- ◆ 육효점, 육임점, 하루일진 래정법

작명(신생아 이름) 음양오행 이름을 지어주면  
만사형통, 건강, 재물, 학업성취

경기 성남시 성남동 2318번지 공설운동장 후문 입구(주차장은 공설운동장)

모음정사(달마 스님)  
031)755-3775, 011-857-3775

##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함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원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사 해봉 -

## 돌고래 슈퍼 에너지텍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m

##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  
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  
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  
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  
하여 합병증과 압박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풍동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  
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  
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영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  
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  
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